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관련 문서

제 목 4차 한·일·중 정상회의

내 용	1.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1
	2. 재난관리 협력	8
	3. 원자력안전 협력	11
	4. 지속가능한 성장 협력	13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2011년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손실과 막대한 물적피해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3국 국민들의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3국 협력은 본질적인 필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우리는 3국 협력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견고한 모멘텀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의지를 공유하였다. 3국 협력이 일본의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특히 재난과 곤경시에 상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곤경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표하였다.

우리는 올해 한국에 설립될 3국 협력 사무국에 관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앞으로 사무국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며, 각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심도있는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3국 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3국 협력

【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

동일본 대지진을 돌아보며, 일본은 원전 사고와 지진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중국 및 한국,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속문서와 같이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제 성장 】

우리 역내 주요한 3국의 지도자들은 3국이 역내 활력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의 왕성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3국간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3국간 투자 체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조속히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일본의 현재 상황과 그 합의를 고려하고,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진전과 3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들의 건의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그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식품 안전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동북아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NEAL-NET)의 설립을 환영하였으며, 3국 물류장관회의 틀 내에서 원활한 물류 시스템 확립과 3국간 육상-해상 복합운송의 조기 실현을 위한 진전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3국간 관광 증진이 경제분야, 특히 재해를 입은 일본의 관광 분야 촉진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2010년 제5차 3국 관광장관회의에서 설정한 2015년까지 3국간 인적 교류 규모를 2600만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지지하였다. 우리는 3국이 이러한 목표의 실현과 관광 및 우호교류의 증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3국간 상호주의에 기반한 자유화 확대를 통해 항공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증 절차 간소화 노력을 확인하였고, 자매 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관세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특히 3국 관세청장회의의 틀 내에서 무역 촉진 및 통관절차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고, 부속문서와 같이 결정하였다.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 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전세계적 환경 문제 및 황사, 산성 강하물(acid deposition), 특히 전자폐기물 등 고형폐기물의 불법적 초국경 이동과 같은 지역적 환경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전자폐기물 등 폐기물의 불법적 초국경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약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3국 순환경제 시범단지 설립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구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였고, 순환경제 시범단지의 미래 틀에 대한 유용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준비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협력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 인적·문화적 교류 】

우리는 인적 문화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가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소년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2012년이 일-중 관계정상화 4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3국간 우호교류를 특별히 증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3국 대학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CAMPUS Asia 시범사업이 출범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3국간 교육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 협의체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정하였다. 협력분야는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학생 및 교사 교류 추진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3국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제3차 3국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나라선언문(Nara Declaration)에 기초하여 3국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2012년 제4차 3국 문화장관회의가 이러한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3국 문화컨텐츠 산업 포럼이 3국간 문화컨텐츠 산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 기타 】

우리는 해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색 및 구조 분야의 3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3국간 더욱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와 다년간 행동 계획(Multi-Year Action Plan)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올해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의 심도있고 의미있는 논의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견해를 계속 교환할 것이다.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장기적이고 단합된 노력이 테러의 근절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3국간 대테러협의회가 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였다.

우리는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가 국제 항해와 상업 항로 안전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공동 위협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 및 국제문제

【 동북아 정세 】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우리는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6자회담의 2005년 공동 성명에서 명시된 목표들을 실현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동아시아 지역협력 】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3국 정상회의,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현존하는 협력체들을 통해 지역협력을 증진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동력으로서 ASEAN의 역할을 계속 지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올해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해 ASEAN 및 여타 회원국들과 함께 3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군축비확산 】

우리는 핵비확산조약(NPT)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국제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두에게 감손 없는 안보 원칙에 기초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2010년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고, 동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 국제 경제 동향 】

우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포함한 국제 경제 동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G20과 기타 관련 포럼을 통해, 특히 G20 서울정상회의의 결과들을 꾸준히 이행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끝/

재난관리 협력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배경으로, 3국 중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한 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국가에 동일하게 고통을 준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원조시스템 강화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및 재해구호 능력향상을 위하여 협력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확인했다.

1. 우리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통한 재해위험 경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2. 3국 중 한 국가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두 국가는 재난피해국가의 상황 및 수요를 인지·파악한 후, 재난피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긴급구조팀 등 재난구호팀과 구호 물자를 보낸다. 재난구호팀은 자립적 활동이 가능하여 재난피해 국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3. 재해피해국가는 국제적인 관행과 재난 관련 상황을 고려하고,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재난구호팀 및 구호 물자를 접수하는데 가능한 한 신속히 협력을 제공한다.
4. 3국은 자연재해로부터의 경험과 교훈, 특히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향후 재해위험경감 및 재난구호활동에 동 경험과 교훈을 활용한다.

5. 3국은 재해복구과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복구과정에서의 3국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6. 3국은 2008년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공고히 해온 3국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7. 3국은 ARF, EAS, ASEAN+3 등 3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지역 포럼에서 재난관리 관련 긴밀히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한다.

1. 훈련 실시 및 역량 강화

- 지원 제공 및 접수 역량향상을 위해 지원 제공·접수, 재난 관리 및 재해구호 당국간의 교류 증진
- 필요시 다른 지역체제와의 협력을 통해 시뮬레이션(TTX 탁상 훈련) 및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위한 합동 훈련 실시 고려
- 재해피해 지역에 대한 3국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교환 보장

- 재난관련 정보 전파 및 수요와 지원간의 신속한 일치를 위해 24시간 연락 포인트 지정. 3국 협력 사무국을 통해 원활한 양자 정보교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자국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련 협력 강화

3. 지원 제공 및 지원 접수 관련 조정 향상

- 긴급구호물자 접수 및 재난구호팀 파견·접수 관련 절차와 관행에 대한 정보 공유

4. 재난 관리에 관한 기술 증진 및 정보공유 강화

- 3국의 재난구호·재난관리 관련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
- 재난관리 관련 적절한 특정 지역 정보 활용방안 논의
- 지역기구 및 UN기구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기존 설립된 또는 구축 예정인 플랫폼 적극 활용

우리는 상기 언급한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국 협력 사무국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해피해지역의 상황 전개를 고려, 실무급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3국 재난 관리기관장회의와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훈을 얻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재해피해 지역의 재건복구 상황을 고려하여 3국의 재해예방 및 재건복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의 현장연구 실시를 고려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끝/

원자력 안전 협력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최근 일본을 강타한 비극적인 지진, 해일 및 원전 사고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원자력 시설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해나가기로 하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일본정부는 동 사고를 통한 교훈을 한국, 중국 및 국제사회와 폭넓게 공유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세계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가 많은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선택사항 중 하나라고 인식하면서, 원자력 안전 확보가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이며, “안전제일” 원칙이 확보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안정화해나가고 동 원전 사고의 최종적인 해결을 달성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연재해로부터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국 전문가간 협의를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협의는 2008년 9월 3국간에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혹은 여타 포럼에서의 3자 및 양자간 협의들을 통해 안전규제, 방재체제, 비상대응 및 기타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 실시될 것이다. 이에 따라, 3국은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를 실질적이고 확실한 협력의 틀로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교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긴급사태시 조기통보체제 구축, 전문가 교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원자력 사고시 기류 분석·예측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사고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생산품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과 이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금년 6월 개최되는 IAEA 원자력 안전 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관련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하였다.

/끝/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제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한다. 3국 정상은 UN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원칙, 특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대응능력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목표로 하여, 글로벌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의 점진적 촉진이 국제사회 전체 뿐만 아니라 3국의 관심사항임을 인식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타 노력 뿐만 아니라 저탄소기술 및 생산물의 확산을 통한 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3국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3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서 연구 혹은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특히 3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APEC, IPEEC(국제에너지효율파트너십) 등 현존하는 국제적인 틀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3국이 과학 기술 협력의 견지에서 녹색기술포럼을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확인했다. 동 포럼은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입안자들과 과학자들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또한 2010년 6월 한국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및 동 기구의 활동을 위한 전 세계 차원의 지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GGGI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3국 협력을 모색하고 촉진하는 적절한 플랫폼이 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3국의 정책 및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해 소장 정책입안자들간의 인적교류를 촉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끝/